

경의선 숲길을 거닐며

장우일 지음

숲은 나의 이야기를 들어준다.
발걸음마다 평온이 찾아온다.
내 안의 그리움이 길을 찾는다.

일상의 모든 순간, 숲길에서 시가 된다.

경의선 숲길, 당신의 이야기가 되다.

따뜻한 시선이
느껴지는 책이에요.
- 백**

복잡한 생각들이
정리되는 기분이예요.
- 김**

지친 마음을 달래주는
시집이에요.
- 성**

지혜의서가

1

싱그러운 아침

싱그러운 아침

햇살 스미는 길

햇살 스민 숲길 위에
분홍빛 춤추는 꽃잎
작은 발걸음마다
숨죽인 시름 녹아내려

고소한 빵 굽는 내음
따스한 커피 한 모금
해맑은 아이 웃음
꼬리 흔드는 강아지

불안은 멀리 지평선 너머로
텅 빈 가슴 채우는
오랜 그리움 같은 평화
나른한 안온에 잠기네

너른 숲길 품 안에서
고요히 숨 쉬는 시간
마음 저미던 흔적들
어느새 잔잔한 위로로

벚꽃잎의 인사

경의선 숲길, 봄 햇살 스며들면
분홍빛 구름 피어나는 길
바람 실어 온 꽃잎의 인사
어깨 위 살포시 내려앉네

작은 발걸음 따라 강아지 뛰어놀고
아이들의 웃음소리 꽃잎에 닿아
모두가 한 폭의 그림 같아라
시간마저 쉬어가는 곳

향긋한 빵 냄새, 커피의 온기 속
무심히 걷다 보면 어느새
복잡했던 마음 잔물결처럼 스러지고
투명한 평화 찾아오네

숲길 따라 흐르는 고요한 위로
묵은 시름 씻어내려
가슴 가득 채워지는 따스한 그리움
새로운 아침을 꿈꾸게 하네

춤추는 나뭇가지

아침 햇살 춤추는 나뭇가지
연분홍 꽃잎이 길 위에 내린다
봄바람 실어 온 웃음소리 가득

작은 발걸음 총총 강아지들 따라
빵 굽는 향기, 커피 내음 어우러져
평화로운 풍경 속에 마음 열린다

걸음마다 스며드는 따스한 숨결
어깨 위의 짐들은 소리 없이 사라지고
숲길 따라 흐르는 고요한 위안

잊었던 그리움이 잔잔히 밀려오고
익숙한 안정감, 포근히 감싸 안아
새로운 하루를 품에 안은 듯하다

새들의 합창

아침 공기 실어오는 맑은 숨결
숲길 따라 새들의 노래 피어나네
재잘거림 사이로 햇살 스며들면
세상은 온통 푸른 평화로 물드네

춤추는 나뭇잎은 속삭임 더하고
발걸음마다 가벼운 설렘 안겨
어느새 마음속 그림자 열어지고
고요한 위로가 가슴 가득 차오르네

향긋한 빵 내음 섞인 커피 한 잔
지나던 작은 새 깃털 파닥이며
모든 시름 내려놓은 이 길 위에서
그리움마저 따스히 풀려 흐르네

강아지 꼬리 흔들며 뛰어가고
아이들 웃음소리 바람에 실려
경의선 숲길은 흐르는 시간처럼
변함없는 안식을 선물하네

어린 풀들의 속삭임

풀잎 속삭이는 아침 경의선
햇살 한 줄 어깨 위 내려앉아
열은 안개 걷히는 길목

춤추는 나무들 꽃비 내리고
작은 발걸음 따라 웃음꽃 피네
강아지 꼬리 흔들며 평화로운 길

빵 굽는 향기 스쳐 지날 때면
따스한 커피 한 모금 시름 잊고
맴돌던 고민들 아스라이 녹아

이 길 끝에 다다른 마음은
오래된 그리움처럼 편안해라
잔잔한 안정감 가득 채우네

연둣빛 발자국

연둣빛 아침 숨결 스며드는 길
효창을 넘어 공덕 지나 서강의 바람
새싹 돋는 발걸음 가벼이 닿으니
세상의 무게 저 멀리 흩어지네

벚꽃잎 춤추다 이내 흩어져 내리고
작은 강아지 꼬리 흔들며 뛰노네
아이들 웃음소리 햇살 가득 번지고
나무들 속삭임 따라 숲길은 흐르네

향긋한 빵 내음 길모퉁이 감싸고
따스한 커피 한 모금 시름을 녹이네
아무 생각 없이 걷는 발자국마다
묵은 고민들이 저절로 사라지는 풍경

가슴속 깊이 스며드는 이 평화
속 시원히 비워진 자리 따스한 그리움
연남의 노을빛 아래 홀로 걸어도
마음엔 언제나 푸른 숲길의 안정감

바람의 길동무

경의선 숲길 아침 햇살
바람이 속삭이는 길을 따라
첫걸음 내딛는 설렘 속에
어깨 위의 짐 잠시 내려두네

춤추는 나무들 사이로
연분홍 벚꽃잎 흩날리고
강아지들 재롱에 웃음 터지고
손잡은 아이들 발걸음 가벼워라

고소한 빵 내음 스쳐가는
따스한 커피 한 모금에
묵었던 시름 스르륵 녹아내려
어느새 마음 한결 편안해지네

숲길은 나의 오랜 벗 되어
안정과 그리움이 스미는 곳
발걸음마다 평화가 깃들어
다시 찾고 싶은 따스함이어

이슬 맺힌 시간

이슬 머금은 풀잎 위로
새벽빛이 조용히 스미면
경의선 숲길은 새로운 숨을 쉬고
작은 설렘이 걸음마다 맺히네

분홍 벚꽃잎 춤추는 길
아이들의 웃음이 바람에 실려
느린 발걸음 속 작은 평화
모든 풍경이 스르르 녹아드네

지친 마음의 그늘 걷히고
어깨 위의 무거운 짐 사라져
싱그러운 기운 가득 채우니
어느새 속 깊이 편안함이 찾아와

푸른 잎사귀 흔들리는 소리에
잊었던 그리움이 잔잔히 번지고
이 길 위에서 찾은 고요한 안정감
가슴에 오래도록 머무는 시간

작은 꽃잎의 꿈

싱그러운 아침 길을 걷네
작은 꽃잎처럼 꿈을 꾸네
숲길 따라 바람이 속삭여
새로운 하루가 피어나네

춤추는 나무들 손짓하고
분홍빛 벚꽃잎 흩날려요
아이들 웃음소리 가득한
평화로운 이 길 위에 서서

가슴 속 묵은 고민 녹아내려
향긋한 빵 냄새 감싸 안고
한 걸음 한 걸음 편안함이
마음 가득 스며들어요

그리움 피어나는 숲길에서
안정된 숨결 쉬어 가요
작은 꽃잎의 꿈 이루듯
고요한 행복이 머무는 곳

흙길의 노래

경의선 숲길, 아침 햇살 스며들면
흙길 위로 발걸음 가볍게 내려앉아
어제의 시름, 바람에 흩어지네

춤추는 벚꽃잎, 분홍빛 속삭임 되고
어린이 웃음소리, 강아지 총총걸음
생기로운 숨결, 길 위에 가득하네

고소한 빵 냄새, 향긋한 커피 내음
무심코 걷다 보면 마음은 이미 홀가분
어느새 평화로운 안정감이 찾아오네

나직이 흐르는 시간, 위로가 되어주고
지친 어깨 토닥이며 그리움 머금은 곳
경의선 숲길, 내 안에 고이 머무네

고요한 설렘

고요한 숲길에 첫 발을 딛네
이른 아침 공기는 설렘을 머금고
경의선 따라 흐르는 시간
새로운 하루를 여는 숨결

춤추는 벚꽃잎은 분홍빛 속삭임
작은 강아지 뛰어들고 아이들 웃음 가득
갓 구운 빵 향기 커피 내음 어우러져
생기로운 풍경은 마음을 채우네

무겁던 고민들 바람에 흩어져
발걸음 가벼이 허공을 거닐면
어느새 텅 비운 듯 홀가분한 마음
평화로우만 남은 이 길 위에서

그리움 같던 안정감이 스며들어
지친 마음 위로 편안함 내려앉고
숲길은 고요히 나를 감싸네
다시 찾은 평온 나의 안식처

계절의 시작

경의선 숲길, 봄별 스며든 아침
벚꽃 잎 춤추듯 사뻐히 내리고
나뭇가지마다 새 생명 속삭이네

아이들 웃음꽃 강아지 종종걸음
손 맞잡은 연인, 평화로운 발걸음
길 따라 이어지는 삶의 풍경들

고소한 빵 내음, 그윽한 커피 향
무겁던 마음 어느새 가벼워지고
길 위에서 만나는 고요한 위로

가슴속 그리움, 잔잔한 안정감
한 걸음 한 걸음 채워지는 편안함
숲길 따라 흐르는 나의 하루

첫 발걸음

싱그러운 아침 공기 발끝에 스미고
경의선 숲길, 첫 걸음 내딛으니
어제의 그림자 저절로 떨어지네

봄날 벚꽃잎 춤추듯 휘날리고
햇살 아래 아이들 웃음꽃 피네
강아지들 풀밭에 몸을 던지고

고소한 빵 내음, 커피 향 스치면
마음의 짐도 가벼워지는 순간
아무런 생각 없이 그저 걷는 길

발걸음마다 스며드는 평안함
오래된 그리움처럼 아늑하여라
이 길 끝에 닿을 위로 한 조각

숲의 숨결

싱그러운 아침 햇살 쏟아지는 길
춤추듯 피어난 벚꽃잎 흩날리고
어깨 스치는 바람 속 작은 미소

작은 발걸음 총총 강아지 따라 걷고
아이들의 웃음소리 햇살처럼 번져
저마다의 하루가 숲길에 녹아드네

고소한 빵 내음 길 끝에 머물고
따스한 커피 한 모금 마음에 스며
무겁던 발걸음 어느새 가벼워져

사각이는 잎새 속 잔잔한 위로
고민 많던 마음 잠시 내려놓으니
잃었던 평화 다시 내게 찾아와

2

함께 흐르는 시간

함께 흐르는 시간

강아지와의 눈맞춤

숲길 따라 흐르는 시간
발걸음마다 내려앉는 평화
햇살 머금은 나뭇잎 흔들리고
고민들도 가벼이 흩어져

문득 멈춰 선 길 위에서
작은 눈동자 마주하네
순수한 물빛 닮은 시선이
고요히 나를 담아내는

언어 없이 닿는 온기
털끝 같은 위로가 스며들어
세상의 모든 무게 잠시 잊고
가슴 저미는 포근함에 안기네

함께 흐르는 숨결처럼
투명한 교감으로 채워지는
경의선 숲길의 하루는
작은 기쁨으로 충만하네

아이들의 웃음소리

햇살 쏟아지는 경의선 숲길
나뭇잎 흔들며 숨 고르네
작은 손 맞잡고 뛰어가는
아이들의 웃음꽃 피어

종알거리는 소리 바람에 실려
가벼운 발걸음 따라 흐르고
맑은 눈빛 세상 물들이니
모든 시름 저절로 녹아

갓 구운 빵 향기 스며들고
따스한 커피 내음 감도네
함께 걷는 시간 속에서
고요한 평화 마음을 채워

문득 그리움처럼 찾아온
오래된 안정감 속삭이는 길
이 순간 온전히 머물고 싶어
숲길은 따스한 품을 내어주네

오후의 카페

오후 햇살 스며드는
숲길 옆 작은 창가
커피향에 마음이 녹아

걸음마다 스치는 바람
춤추는 나뭇잎 소리
강아지 풀밭 위를 뛰놀고

복잡했던 생각들
어느새 숲길에 스며들고
가벼워진 발걸음만큼
마음도 편안해져요

따스한 차 한 잔에
그리움이 스며드는 오후
이곳에서 찾은 안온함
하루를 감싸 안네요

갓 구운 빵 냄새

갓 구운 빵 내음 길을 따라 번지면
나른한 햇살이 나뭇가지 흔들고
발걸음은 고요히 길을 찾네

분홍 벚꽃잎 춤추는 길 위로
아이의 웃음소리, 강아지 꼬리 흔들림
모두 한데 어우러져 흐르는 시간

가슴 속 묵직한 고민 내려놓고
무심한 걸음에 마음 편안해지면
숲길은 말없이 나를 안아주네

향긋한 커피처럼 스며드는 안온함
오래된 꿈처럼 아련한 그리움
경의선 숲길, 쉬어가는 나의 정원

벤치 위의 대화

경의선 숲길을 따라 발걸음 놓으면
초록 물결 스르르 마음을 적셔요
춤추는 나무 그림자 사이로
근심 어린 어깨 살포시 내려앉아요

어린이 웃음꽃 바람에 피어나고
강아지 총총 발걸음 따라가요
고소한 빵 내음 커피 향 스치면
함께 흐르는 시간이 참 따스해요

벤치에 기대어 푸른 하늘 바라보면
어지럽던 생각들 먼 구름과 함께
아늑한 숲길의 속삭임 위로되어
지친 마음이 고요히 숨을 쉬어요

계절마다 다른 옷 갈아입어도
이곳은 늘 같은 평화를 안겨요
그리움 한 조각 채우는 안정감
순간이 영원이 되는 숲길 위에서

지나가는 발걸음들

발걸음 닿는 곳마다
푸른 바람 속삭이고
벚꽃잎 흩날려
길 위에 수놓네

어린이 웃음소리
강아지 꼬리 흔들며
고소한 빵 내음에
시간마저 멈춰 서요

카페 창가에 기대어
복잡했던 마음 풀어두면
소소한 풍경들이
따스한 위로를 건네웁니다

숲길 따라 걷는 발자국
고요히 스미는 안정감
지나온 시간의 그리움
가슴 가득 편안히 머뭅니다

도시의 쉼표

경의선 숲길에 발걸음 닿으니
춤추는 나무들 반겨 맞이하고
사뿐히 즈려뺏은 봄날의 벚꽃
고민들은 스르르 녹아내려요

어린이 손 잡은 부모의 웃음
강아지 꼬리 흔들며 뛰어가고
고소한 빵 내음, 커피 향 가득
도시 속 쉼표가 여기 있어요

발끝에서 퍼지는 가벼운 온기
지친 마음 어루만지는 위로
무거운 생각들 저절로 흩어져
속삭이는 바람에 실려 가네요

아련한 그리움 스미는 길 위
단단한 안정감 마음 채우고
따스한 평화가 가득한 오후
함께 흐르는 시간을 걸어요

익숙한 풍경

춤추는 나무 그림자 고요히 흔들리고
분홍빛 벚꽃잎 길을 사뿐히 덮네
익숙한 발걸음 조용히 닿는 곳

꼬리 흔드는 강아지 해맑은 웃음 피고
작은 손 흔드는 아이들 재잘거린다
모두 함께 평화로이 걷는 시간

고소한 빵 냄새 바람에 실려오고
쌉쌀한 커피 향기 스며드는 길목
느린 호흡 속에 마음이 채워진다

어깨 위의 짐들은 가벼이 흩어지고
묵었던 시름마저 흐려지는 오후
숲길 따라 흐르는 따뜻한 그리움

어느 노부부의 산책

오랜 세월 담은 손, 숲길을 맞잡고
겹겹이 쌓인 시간, 발걸음마다 쉬어가
느리게 흐르는 햇살, 어깨 위에 내려
젊은 날의 약속처럼, 말없이 걷네

봄별 아래 춤추는 나무들 사이로
수줍은 미소 번지면 세상이 환해져
지나간 이야기들, 나뭇잎에 실려
함께 가는 길에, 그리움 스며드네

향긋한 빵 냄새, 커피 향 가득한 길
작은 시름들은 바람결에 흩어지고
속 깊은 평화가 가슴 가득 차오르네
지친 마음 어루만지는 고요한 위로

끝없이 이어진 길, 함께 한 발자국
묵묵히 쌓아 올린 견고한 하루들
서로에게 기대어, 안온한 안정감
삶의 무늬를 새기며, 고즈넉이 걷네

길가의 작은 그림

발걸음 닿는 곳마다
풀꽃 향기 번져오네
느리게 흐르는 시간
가슴에 스며듭니다

춤추는 나뭇가지 사이
햇살 부드럽게 내려앉고
작은 빵집의 온기
지친 마음 감싸줍니다

강아지 뛰어노는 웃음
아이의 맑은 눈빛 따라
어느새 사라진 근심
가벼운 숨을 쉬게 되죠

벚꽃 잎 흩날리던 길
푸른 잎 무성한 지금
숲길 따라 흐르던
안온한 그리움입니다

따뜻한 한 모금

숲길에 스며든 햇살 한 조각
발걸음마다 계절이 흐르고
따스한 공기 한 모금에
숨 고르는 시간

어린 손 잡은 웃음꽃 피고
강아지 총총 따르는 길
갓 구운 빵 냄새 섞여
정겨운 풍경을 만들고

겹겹이 쌓인 마음의 무게
나뭇잎 사이로 스며들어
어느새 가벼워진 걸음
푸른 위로에 맡겨두네

고민은 멀리 작은 점이 되고
가슴엔 잔잔한 평화 한 아름
경의선 숲길 따라 흐르는
따뜻한 안온함 머물러라

어제의 기억

어제 기억이 숲길에 닿아
발걸음마다 지난 시간이 흐르고
흔들리는 잎새에 햇살 부서져

춤추던 나무들 그 아래 웃음꽃 피고
어린 아이 손잡은 부모의 뒷모습
고소한 빵 내음 길가에 스며

무거운 고민들 조용히 내려놓고
가벼워진 걸음 속에 마음도 놓여
어느새 속 깊은 평화가 찾아와

그리움 같던 안정감이 스미는 곳
이 길 따라 걷는 고요한 위로
다시 찾을 오늘의 편안함

평화로운 순간

경의선 숲길, 발걸음 가벼이
봄별 아래 벚꽃, 춤추듯 날리고
어깨 위 시름, 바람에 스며드네

작은 강아지, 환한 웃음 아이들
고소한 빵 향기, 커피 내음 짙은 길
모든 것이 그저, 평화로이 흐른다

아무 생각 없이, 숲길을 거닐면
묵직했던 마음, 어느새 비워지고
따스한 안온함, 가득히 채워오네

초록 잎새마다, 그리움 묻어나고
깊은 숨결 속에, 안정감 깃드네
숲길은 고요히, 나를 품에 안는다

다정한 시선

경의선 숲길, 발걸음 소곤소곤
봄별 가득한 길을 따라 걷다
어느새 공덕 지나 서강에 닿고
느린 숨결로 시간의 강을 건너네

하늘 향해 춤추는 나무들 사이
분홍빛 벚꽃잎이 눈처럼 내려
뛰노는 강아지, 손잡은 아이들
다정한 시선 따라 마음도 쉬어

고민의 그림자 발끝에 머물다
따스한 빵 냄새에 슬며시 녹고
향긋한 커피 한 모금에 스미는
잃었던 평화, 잔잔한 위로

가벼워진 걸음, 편안한 숨결
마음 저 깊이 안정감 찾아들고
숲길이 건네는 그리운 안녕에
하루는 고요히 스며든다

3

위로와 여운

위로와 여운

사라지는 고민들

경의선 숲길에 발을 디디면
무거운 마음 그림자처럼
따라붙던 걱정들 가만히
흙길에 스며들어 희미해지네

햇살 머금은 춤추는 나무
벚꽃 잎은 속삭이며 흩날려
빵 굽는 향기, 커피 내음
세상 풍경 평화로이 흐르네

작은 숨결 하나하나 새기며
느린 걸음 속 마음 비워가니
어느새 텅 빈 불안의 조각들
바람결에 실려 멀리 가버렸네

그리움 한 조각 내려앉고
따뜻한 위로 손짓하는 길
가만히 쉬어가는 발걸음마다
안온한 평화가 깃들어 있네

가벼워진 마음

경의선 숲길, 발걸음은 열어지고
어제 묵었던 그림자 흩어지는 아침
새로운 숨결로 가득 차는 이 길

춤추는 벚꽃잎, 햇살 아래 가벼이
강아지들 풀밭 뛰어놀고 웃음소리
향긋한 커피 내음, 빵집의 온기

한 걸음마다 내려놓는 무거운 생각들
도시의 소음 저 멀리 희미해지면
가슴 저 밑바닥까지 환해지는 마음

그리운 풍경들, 고요히 스며드는 위로
고요한 안정감, 발끝에 닿는 평화
가벼워진 걸음마다 봄이 다시 찾아와

숲이 주는 위로

어느새 발걸음 닿는 곳
초록 물결 일렁이는 숲길
고개 숙인 마음 비워내면
바람이 스쳐 위로 건네네

강아지 꼬리 흔들며 웃고
아이들 재잘대며 뛰노는 길
커피 향 뽕 내음 스며들어
일상의 평화가 스미는 시간

겹겹이 쌓인 시름 내려놓고
무심히 걷는 한 걸음마다
어깨 위 짐 저절로 가벼워져
묵었던 속 편안히 풀리네

그리운 얼굴들 떠올리다
새삼스레 찾아온 안정감
이 길 끝에 닿은 마음은
고요한 여운 속에 머무네

고요한 속삭임

경의선 숲길에 봄빛 스며들면
벚꽃 잎 흩날려 발걸음 가볍다
강아지 총총, 아이들 웃음꽃 피어

고소한 빵 내음 길 따라 번지고
쌈쌀한 커피 향 여유를 더해
나란히 걷는 이들, 작은 행복 모여

복잡한 생각들 바람에 실려가고
가슴속 깊이 스미는 고요한 위로
묵묵히 걷는 시간, 마음이 정화된다

이 길 끝에 닿는 편안한 안식
어제 잊었던 그리움 다시 차오르면
숲은 변함없이 나를 기다리네

밤이 오는 길목

노을빛 스미는 숲길에
하루의 끝자락 고요히 내려앉네
흩어진 고민들 바람에 실려 가고

가로등 불빛 하나둘 번져 가면
익숙한 길은 새로운 꿈을 꾸듯
발걸음마다 편안함이 스며들지

향긋한 커피 내음 길목을 감싸고
오가는 미소마다 온기가 깃든다
마음의 짐 내려놓는 깊은 숨 한 모금

고요히 밤이 오는 길목에 서서
지나온 시간들 위로 건네받으니
어느새 그리움마저 포근한 안식

노을빛 그림자

경의선 숲길에 저녁놀 드리우면
발걸음마다 지난 고민 녹아들고
붉은 빛 그림자 길게 눕는다

춤추는 나뭇가지 바람에 실려
어린 아이 웃음꽃 피어나는 곳
고소한 빵 내음 길을 따라 흐르고

발끝마다 서걱이는 풀잎 소리
가슴속 묵은 시름 덜어내는 시간
노을빛 위로에 마음은 평온해져

고즈넉한 길 위 그리움 스미고
깊은 안정감 고요히 찾아오네
이 길 끝에 온전한 내가 머문다

돌아오는 발걸음

춤추는 나무 그림자 햇살에 스미고
효창을 넘어 공덕의 바람이 쉬어가네

갓 구운 빵 내음 길옆에 번지고
강아지들 재롱에 아이들 웃음꽃 피네

발걸음마다 무겁던 시름 열어지고
가벼이 부는 바람에 마음 실려가네

서강대 지나 연남동까지 이어진 길
돌아오는 발걸음, 평화로운 여운을 담네

내일을 위한 쉼

경의선 숲길에 발을 들이면
도시의 소란 잠시 잊히고
새로운 숨결 스며드는 곳

춤추는 나무 사이 햇살 부서져
강아지 꼬리 따라 웃음 피어나고
고소한 빵 내음, 커피 향 가득

발걸음 가벼이 걷다 보면
묵직했던 마음 편안히 놓여
사라지는 고민, 찾아온 평화

푸른 숲길 품에 안겨 쉬는 시간
내일을 위한 고요한 위로
다시 설 힘 얻어 돌아가는 길

오래된 그리움

오래된 그리움 숲길에 스미면
효창에서 연남까지 발걸음 닿네
어제의 속삭임 오늘에 닿아
춤추는 나무들이 계절을 알린다

봄별 아래 흩날리는 벚꽃 잎처럼
사라지는 근심들 고요히 내려앉고
강아지 아이들 웃음소리 가득한
그 평화 속에 마음이 편안해진다

향긋한 빵 냄새 커피 내음 스치는 길
걸음마다 차오르는 작은 위로
모래알처럼 쌓인 시간의 흔적
낡은 기억들을 어루만지는 바람

문득 스쳐가는 잊었던 얼굴들
무심코 걷다 보면 마음 저며 오고
가슴에 품었던 오랜 그리움마저
이 길 위에서 고요히 쉬어간다

안정의 품

경의선 숲길에 들어서면
효창공원부터 연남동까지
묵은 고민 잠시 잊고 걷네.

춤추는 나무들 사이로
벚꽃 잎 흩날리는 봄날
강아지, 아이들 웃음소리
평화로운 풍경에 물드네.

고소한 빵 내음 가득한 길
향긋한 커피 한 잔의 위로
어지럽던 생각들 저 멀리
고요한 안정감이 찾아와.

가벼워진 발걸음 따라서
편안함 깊숙이 스며들면
이 길 위에서 찾은 오늘
잔잔한 위로와 여운이네.

편안한 고요

경의선 숲길 따라 발걸음 놓으니
도시의 소란 잠시 잊혀지고
햇살은 나뭇잎 사이로 춤추네

분홍빛 꽃잎 흩날리는 길 위에
아이들의 웃음소리 강아지 꼬리 흔들림
고소한 빵 내음 커피 향기 젖어드네

어느새 무겁던 마음이 가벼워지고
속 깊이 쌓였던 근심들 스르르 녹아
편안한 고요가 가슴을 채우는 시간

이 길 위에서 느끼는 익숙한 그리움
온전한 안정감, 깊은 위로가
새로운 걸음마다 스며드는 하루

걸음의 의미

경의선 숲길 따라
벚꽃 흩날리는 봄날
춤추는 나무 그림자
한없이 평화로운 길

발맞춰 걷는 강아지
웃음꽃 피운 아이들
고소한 빵 내음 스며
향긋한 커피 한 모금

겹겹이 쌓인 시름들
걸음마다 스르르 녹아
속 깊이 편안해지는
마음 쉬어가는 시간

그리움처럼 물든 길
흔들림 없는 안식처
걸음의 의미 더해져
깊은 위로 전해오네

깊어지는 생각

발걸음 닿는 숲길따라
햇살은 나뭇잎 사이 춤추고
속삭이는 바람에 마음이 열리네

분홍빛 벚꽃잎 흩날리는 길
아이들 웃음소리 정겹고
작은 강아지 뛰어가는 평화

고민의 그림자 길게 드리워도
향긋한 빵 내음에 스르르 녹고
커피 향 짙은 곳에서 비워지네

어느새 가벼워진 걸음 속에
숨 쉬는 모든 것이 위로가 되고
고요히 흐르는 하루의 끝자락

마음속 깊이 새겨진 안정감
그리움 같은 편안함이 머무네

잔잔한 여운

어느새 발걸음은 숲길을 찾고
흩어진 마음 조각들 내려놓아요
걱정의 무게 사라지는 순간
새로운 숨결 가득 차오르네

봄날 벚꽃 춤추는 길 위에
작은 강아지 발랄히 뛰놀고
손잡은 아이 웃음꽃 피워
따스한 햇살 아래 모두 평화로워라

향긋한 빵 굽는 내음 따라
고소한 커피 한 잔에 맘 녹이면
사소한 시름마저 스르르 녹아내려
텅 빈듯 가벼워지는 이 평온함

그리운 시간들 파랑이 일렁이고
아늑한 안정감 마음 깊이 스며
잔잔한 여운 홀로 남아
또다시 걷고 싶은 발자국 남기네

경의선 숲길을 거닐며

저자: 장우일

출판사: 지혜의서가

발행일: 2026년 07월 04일

전자책 정가: 11,000원

ISBN: 발급 예정

저작권: © 2026 장우일. All rights reserved.

본 도서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로 이 책에 실린 모든 내용 및 편집 구성은 무단 복제와 전재를 금합니다.

본 도서는 AI 기술을 활용한 초안 작성과 자료 정리를 바탕으로, 저자의 기획·검수·편집을 거쳐 완성되었습니다.